

우리의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준은

우리나라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역사는 결코 짧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제품과 냉정히 비교한다면 다른 어떠한 공산품의 비교치와는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백종에 달하는 소방용 기계·기구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한한 제품은 선진국 제품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 지지 않는 제품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제품은 단순 공정이나 기술적인 Know How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제한된 제품일 뿐이다.

어떠한 나라이든지 소방의 근본 목표는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초기에 감지하여 화재가 확산되기 이전에 소화·진압하여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를 극소화하거나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각종 법령으로 의무화하여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하고는 있으나, 당초 근본 목표에 얼마 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이웃 일본에서 국제 방재전이 열려서 한눈에 각종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닿아 전문 방재 회사를 방문하여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현재 우리의 위치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아파트 소방시설물 중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감지기의 운용상태가 100% 정상 동작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실적으로도 이와같은 수준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물론 법령으로 규정된 매년 정기 정밀 검사를 통하여 주기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하고는 있다지만, 이와같은 결과치도 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0.3%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이대로가 좋은가?



李太義
新和電子(株) 副社長

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隔世之感일 뿐이며 실제로 그들의 제조기술이나,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각 기업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상기 이야기가 사실로 믿고 싶을 뿐이다.

최근의 선진국 소방용 제품과 우리의 제품을 비교할 때 “현재 이대로가 좋은가?”하는 의아심이 커질 뿐이다.

소방용 기계·기구는 일반 생활용 필수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초기 감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산품보다 신뢰성이나 내구성을 더 요구하는 제품이므로 제조시에 經年 변화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제 규정은 제품의 질이 최소한의 기술수준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정을 필한 제품이면 만족한 제품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기술수준의 상향화는 무한한 것이기에 현재 다른 분야의 기초 기술을 소방에도 백분 활용하여야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며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의 소방수준에 걸맞는 제품이 될 것이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도 유일하게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가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시험과 연구를 활발하게 하므로써 객관적으로 우리의 소방현실을 재조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행으로 생각하며, 더많은 연구 자료가 발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끝으로 현재 소방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방재 산업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도 가일층 노력을 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